

영광, 전기차 보급률 1위

1000명당 전기차 비율 11%
e-모빌리티 산업 적극 육성 성과
충전기 83기 보유... 무료 개방

영광군의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올해 12월 초 기준 인구 1000명당 전기차 대수 비율이 11%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와 e-모빌리티 보급에 앞장서 지금까지 ▲고속전

기차 518대 ▲초소형 전기차 154대 ▲전기이륜차 239대 ▲전기화물차 40대 ▲개인이동수단(PM) 157대를 보급했다. 또 e-모빌리티 국고사업 진행과 전국 최초의 PM 보급사업 실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해 전국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e-모빌리티 보급과 더불어, e-모빌리티 기반 시설(전용도로, 충전인프라)을 구축했으며 다양한 e-모빌리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충전기 83기를 보유중이며 완속충전기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다. 군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는 내연차에 비해 유지비가 훨씬 저렴해 소상공인(배달용 차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보급사업이 종료된 시점에도 2022년 e

-모빌리티 보급 사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향후 높은 수요와 자금의 명성에 걸맞게 2022년에는 다양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 전기차 80대를 비롯해 초소형 전기차 60대, 전기이륜차 79대, 전기화물차 63대, 전기버스 2대, PM 5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산 정책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높은 수요와 자금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전기차와 e-모빌리티를 향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1만7531명 참여

노르딕워킹·필라테스 등 다양

완도군이 올 한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올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회 운영했으며 총 3752명이 참여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까지 총 236회 운영, 1만7531명이 해양기후치유를 했다. 특히 올해는 계절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대상자별 프로그램은 치매 경증 어르신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 도서 읍면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화했다. 기존의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싱잉 볼'(singing bowl)을 활용한 소리 명상, 파도 소리 명상, 마음 표현하기 명상, 맨발로 모래 걷기 명상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우울했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 숙박을 하며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관광을 통해 힐링 할 수 있도록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해양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3792억원 규모 국고예산 확보 나서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소포지구 치수 확대 사업 등 36건

진도군이 최근 '2023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총 3792억원 규모의 국고예산 확보에 나섰다. 보고회에서 밝힌 국고지원 건의사업은 총 36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13건, 1585억원), 해양수

산부(8건, 379억원), 환경부(6건, 370억원), 문화체육관광부(3건, 662억원), 행정안전부(2건, 665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소포지구 치수 능력 확대사업(700억원) ▲해장·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580억원) ▲북진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200억원)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120억원) ▲진도수산중자연구소 설립(100억원) 등이다. 발굴된 사업들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제

출될 예정이며, 진도군은 내년 1월초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민선 7기 공약을 비롯해 진도 미래 발전을 위한 진도 비전 2040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삼호어촌계와 범죄예방 협약

외국인 범죄 대응력 강화 총력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가 21일 삼호어촌계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삼호 연근해와 해안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해양 안전사고·밀입국자 출현,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박부속품 절도사건이나 외국인의 음주 소란 행위 등 어촌계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업활동 중 밀입국 의심 선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호지구대 관내인 대불국가산단 내에는 외국인 근로자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흥업소 주변에서 마약·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 대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대는 외국인의 민원에 대응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7개 국어 의사소통 보드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현장 경찰관과 외국인 사이의 소통 단절을 해소하고 있다.

김경준 삼호지구대장은 "다양한 치안 수요가 밀집된 대불산단 특성을 고려해 민·관·경이 역량을 한데 모아 외국인 범죄 현장 대응력과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우수 입주기업 모집

물류·제조기업 유치
항만 부가가치 창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목포항 항만배후단지<사진>'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목포시 달동 고하도 서쪽 해역 일원에 위치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총면적 48만5000㎡로 2015년 3월 착공, 지난 7월 준공으로 완료됐다. 서남권 물류 수출입과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입주기업 모집 대상 부지는 복합물류 및 제조시

설 목적의 32만6000㎡(9만8000평)이다. 목포항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물류·제조기업 등과 목포항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입주 자격 및 절차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mokpo.mof.go.kr) 내 공지사항(목포항 1층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안내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성 목포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